

STI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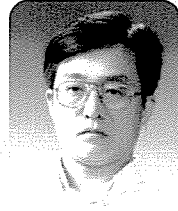
Bulletin

자랑스런 STIMA 人

자랑스런 STIMA 人



자랑스런 STIMA 人 — 이흥주



전자정보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자료실 공간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학술정보는 전자형태로 제공함을 지향하는 반면, 직원들의 교양과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오프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일명 “비타민 북”이라는 브랜드로 교양도서를 구입하여 별도 배가 및 운영을 하고 있다. “비타민 북”은 매월 20여권의 교양도서를 선정하여 입수하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 학술서적과 달리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 등을 달리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사무국

- 이번 호부터 “자랑스런 STIMA인” 칼럼을 신설하기로 하여 첫 번째 인물로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제5,6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감사로 수고하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흥주센터장을 선정하였다.

- 이 센터장은 1979년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삼성동의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사서로 근무하던 중,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기관 도서관이라는 매력에 끌려 1980년부터 지금의 근무처인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에 발을 들여 놓고,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의 교류와 공동의 관심사를 논하고 소속기관내에서의 정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연정협)”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는 대학 입학 후의 유신 및 긴급조치하에서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이 활발하던 시절에는 휴업 및 휴교와 방황으로 학업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약 2년 반의 군 복무후에는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학과수업과 교내외에서의 도서관 아르바이트로 대학생활을 마쳤습니다.

- 대학 졸업 즈음인 8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신설된 “한국종합전시장” 정보센터의 사서로 도서관 종사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나름대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수출의 역군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소규모 1인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인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진흥공사” 도서관을 모델로 하여 주야로 뛰던 초년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긴 수출상품 전시회장 및 전시관의 임직원을 위한 도서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료들을 정리하고 서비스하며 사회에서 만난 동료들과 어울린 시절이라고 회고 하였습니다. 그 시절의 동갑 동료는 현재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지만 가끔씩 만나 당시의 추억에 빠져들곤 한다고 합니다.

- 그는 첫 직장에서의 1년여의 근무하던 중에, 대덕연구단지의 한 연구소가 기관을 확대하고 도서관을

확장하기 위해 직원을 모집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입사시험을 거쳐 지금의 직장인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로 옮겨 대전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옮긴 직장에서는 기존의 소규모 도서관의 인원을 증원하고 또한 부족한 자료의 확충을 위해 외국 차관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두 분의 선배님을 모시고 종전에 배우지 못한 새로운 지식을 전수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서로서의 실무를 접하였다고 합니다.

- 그는 처음 접해 보는 외국 차관의 집행을 위해 서울의 종로서적 등 서점에서 구입 대상 도서의 추천목록을 받아 이를 연구소 내 관련 부서에 회람하고, 구입대상 목록을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해외의 출판사 및 구입대행사들을 통한 도서의 수입을 위한 무역업무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해외로부터의 도서의 직수입을 위한 업무는 전혀 겪어 보지 못한 업무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연구지원을 위한 장서의 확충은 무사히 마무리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 당시에는 지금처럼 컴퓨터와 복사기가 나타나지 않은 시점이라 손으로 기록을 하고 다량의 문서 생산을 위해 먹지를 사용하거나 스텐실에 첩필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쇄하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랜시간이 지난 옛날 일인 것 같아 컴퓨터와 복사기로 편리해진 요즘의 사무실 환경은 천국인 것 같다고 합니다.

- 그는 이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연구단지내 기관들간의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를 통해 부족한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모임에 실무자로 참여를 시작하여, 인근 연구소의 도서관 근무 사서들과 교류의 폭을 조금씩 넓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동남아시아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정보의 공유 및 교류를 위한 시범사업인 "INNERTAP(Information Network on New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and Technology for Asia and the Pacific)"에 실무자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중국 등의 에너지 유관기관 및 정보기관의 사서들과의 교류하고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등지에서의 해외훈련과정에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그는 90년대 초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의 기술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연구단지장서종합목록”의 전산화와 KISTI의 전신인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의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의 초석을 놓기 위한 일에 관계를 하면서, 인터넷 시대의 사서로서 새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6년부터는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 및 그 후신인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2000년부터 2004년 1월까지 STIMA 회장으로 재직하며 특히 2003년 2월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출범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협력사업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 등의 선진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에너지기술 전문 DB인 “ETDE(Energy Technology Data Exchange)”의

구축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가입력센터의 실무자로 참여하고, 이와 아울러 동 DB의 국내 활용과 국내 에너지 기술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위한 “에너지 기술정보 유통사업(ETIS)”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ETDE DB 구축을 위한 참여로 주요 선진국의 정부기관과 정보센터 및 도서관의 사서들과의 교류와 협력은 초기에는 국제적인 통일된 기준하에서의 효율적인 DB 구축과 이의 활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었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서지DB의 활로 모색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에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의 회원기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타개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 그는 지난 20여년간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울러, 급격히 변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여 앞으로 나가야 할지 전통적인 사서로서의 정보 관리 및 중간매개로서의 역할 외에 새롭게 다루어야 할 지식과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습니다.